

개소세 인하폭 70%→30%로 축소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지역신보 한도 6조9천억 확대
코로나19에 생계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에 긴급 고용안전지원금도
에너지고효율 가전 10% 할인 지속...1618만명에 소비쿠폰 지급도

소상공인 긴급대출 재원으로 활용되는 지역신보보증재단 보증 한도가 6조9000억원 상당 늘어난다.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 요건은 연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생계대출 확대-긴급복지 요건 연말까지 연장-먼저 하반기부터 지역신보의 보증 한도를 6조9000억원 늘린다.

확대된 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긴급대출에서 발생한 특례보증 초과접수분을 흡수(1조8000억원)하고 일반보증 공급을 확대(4조9000억원)하며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2000억원)을 공급하는 데 쓰인다.

신용등급·소득이 낮은 자영업자 등 서민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도 1조5000억원 상당을 추가 공급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대출 심사 때 '3개월 이상 계속 재직'해야 한다는 요건을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재직'으로 완화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4~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씩 유예하기로 한 조치는 7-9월분에도 적용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철거비, 재기교육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도 확대한다.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 요건이 연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7월 말까지 재산을 산정할 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

~6900만원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높이기도 했다.

◇임금 삭감분 지원-퇴직연금 단계적 무화-고용유지협약을 맺어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중소기업에는 정부사업 공모 때 가점을 주고 임금이 깎인 노동자 측에는 6개월 동안 감소분의 50% 등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코로나19에 생계에 긴급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게 하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40대가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패키지 '리바운드40+'을 신설한다. 취업지원 업종은 스마트제조기업, 건설근로자, 버스운전, 뿌리기술, 차부품 자동화제어-품질관리 등이 다. 생계부담으로 장기간 국가기간-전력산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중위소득 50% 이하 40대에는 훈련 기간에 4인 가구 이상 기준 월 110만원씩 생계비를 지급한다.

정부는 올해 10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령자 일자리 도입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개소세 인하폭 축소-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은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코로나19 국난 극복 ③ + 선도형 경제 ③ 기반 구축

1 경제위기 조기 극복 위한 버팀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지속 ·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 · 위기-한계기업 보호 · 고용유지 및 안정화 	2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 진작 및 관광 회복 · 대대적 투자 활성화 · 수출력 견지 및 보강 ·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 	3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방역, 대외신인도, 금융, 통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방역리스크 관리와 국제공조 · 국내외 경제-통상리스크 최소화
4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 (한국판 뉴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화 · 유턴-첨단산업 유치 등 GVC 허브화 	5 산업-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 ·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 · 구조변화에 대응한 경제체질 강화 	6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 ·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 · 포용 사각지대 해소-삶의 질 제고 ·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활성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설정한 혁신·포용·공정·상생의 가치 지속 확산

· 재정의 적극적인 뒷받침 · 경제·사회 구조혁신 · 고강도 규제개혁

자료/관계부처 합동 연방뉴스

정되는 셈이다.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진다.

8월부터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쓰면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원상 복구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로 하향조정된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 조정할 방침이며 상향조정폭은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에너지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

는 사업의 규모는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경제활동인구(2773만명)의 절반을 넘어서는 1618만명에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을 지급해 소비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급액의 5배 이상을 소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하고, 남은 발행분에 대해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10% 할인된 은누리상품권 2조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65.08 (+35.48) ↑ 금리(국고채 3년) 0.831 (+0.005)
- ↑ 코스닥 735.72 (+22.04) ↓ 환율(USD) 1225.00 (-13.50)

광주은행, 인공지능 상담서비스 운영

오늘부터 '챗봇 배어비' 도입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일부터 인공지능 상담서비스인 챗봇 '배어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배어비'는 스마트뱅킹과 모바일웹뱅크에서 시범 운영되며 이달 중 인터넷뱅킹으로 확대 실시된다. 9월에는 '보이는 ARS'(음성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4월 실시간 채팅 상담을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인공지능 기반 자동응답시스템인 '챗봇 배어비'를

도입했다. 상담은 대기시간 없이 연중무휴 24시간 동안 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입력하거나 선택한 질문에 답변과 함께 해당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찬암 디지털금융본부장은 "앞으로 은행 내부직원들의 업무상담용 챗봇 상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며 "금융의 비대면채널 이용 비중이 크게 확대된 디지털화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디지털뱅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적 끊긴 거리' 광주 상권 유동인구 17% ↓

광주 11곳·전남 16곳 조사
코로나19에 운수업 직격타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 광주·전남 주요 상권의 유동인구가 1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로플렛에 의뢰해 광주·전남 주요 상권 27곳의 3월 7일 기준 유동인구를 집계해보니 두 달 여 전인 1월4일보다 광주 17.2%, 전남 17% 감소했다.

분석 대상지역은 금남로, 충장로, 전남대학교, 상무지구, 수완지구, 송정동, 첨단1·2지구, 양산지구, 봉선동, 월산동, 금호지구 등 광주 11곳과 전남도청,

순천왕지지구, 나주구시가지, 목포하당신도심, 여수원도심, 순천법원 등 전남 16곳이었다. 유동인구는 와이파이(무선인터넷) 접속 기록을 분석해 집계했다.

유동인구 감소는 운수업계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광주송정역에서 승차한 이용객 수는 2월 25만1000명·3월 17만1000명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9.8%, 59.3% 급감했다. 무안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이용객 역시 2월 55.2%, 3월 69.5% 감소했다.

다중 밀집시설 기피 심리에 따라 광주 지역 극장 관람객 수는 2월 67.3%, 3월 85.3% 줄었다. 전남지역도 2월 67.6%, 3월 87.3% 급감했다. /백희준 기자 bhj@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개선

대한주택건설협 광주·전남도회
1994년부터 251가구 혜택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 주거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협회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1994년부터 27년째 펼쳐오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올해까지 광주·전남에서 총 251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협회는 올해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지원대상자 복수추천을 받아 전상군경신도(95·고효군 고효읍)씨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노후주택 18가구를 선정해

주거개선 사업에 착수했다. 가구당 평균 1000만원 수준의 공사비가 소요되며, 협회 소속 지역 주택건설사 16개 업체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한다.

출입문과 방, 부엌, 마루, 화장실 등 보수공사와 지붕개량공사, 도색, 보일러 교체, 도배, 장판 등 이달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광주·전남에 뿌리를 둔 회원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도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참여해왔다"며 "최근 3년째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노후주택 개·보수를 진행하는 등 참여 회원사에게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한전, 클라우드서비스

'허브팝' 품질·성능 인증

한국전력은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품질·성능 인증을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한전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허브팝'은 지난 2017년 개발에 착수한 뒤 올해 말까지 디지털변환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는 사내 직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연구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인증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최 초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드에 인터넷상에 마련한 개인용 서버에 각종 문서나 정보를 저장해 두는 시스템을 말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편안한 집콕 생활 필수템 '빈백'

1일 ㈜광주신세계를 찾은 고객이 8층 '요기보' 매장에 마련된 '빈백(Bean bag) 상품'을 체험하고 있다. 이 매장은 오는 11일까지 운영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